

장바구니 물가 자고나면 뚝다

5개월째 3%대 고공행진... 한달새 파 30%·무 15%·돼지고기 9% 올라

지난 1년간 광주지역의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또 '장바구니 물가'로 통하는 생활물가지수도 5개월 연속 3%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하반기 물가안정에 적신호가 일고 있다. 2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보다 2.4% 올랐으나 각 가정의 생

계비와 직결되는 서비스요금은 3.7%나 올라 서민들의 주름살을 깊게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공공·개인서비스 요금이 1년 전보다 각각 3.7%, 3.6%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부문은 시내버스 요금이 18.6% 오른 것을 비롯, ▲전철 요금(12.5%) ▲국립대학 납입금(10.2%) ▲고속버스 요금(7.4%) ▲도시가스(6.5%)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개인서비스 부문도 ▲자동차학원비(46%) ▲대리운전이용료(25%) ▲대입학원비(18.1%) ▲태권도학원비(14.3%)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는 또 자동차학원비가 최근 한 달새 17.9%나 뛰는 데다 휘발유와 경유도 전월보다 각각 3.1%나 오르는 등 일부 물가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물가안정에 먹구름을 드

리우고 있다.

품목별로는 여름철을 맞아 선풍기 가격이 한 달새 13.1%나 올랐으며, ▲양상추(11.2%) ▲오이(10.6%) ▲돼지고기(9.1%) ▲오렌지(7%) 등이 동반 상승했다. 이밖에 소주가 전월보다 4.7% 오른 가운데 맥주와 청주도 각각 1.3%, 0.7%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주류가격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도 올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광주의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2% 상승하면서 지난 2월(3.1%) 이후 5개월 연속 3%대의 오름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파(28.9%) ▲무(15%) ▲햄(12.6%) ▲고등어(10%) ▲고추장(5.4%) 등의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뛰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땅끝서 도리산역까지

'2007 전남대 국토대장정' 행진단 제1기 47명(학생 45명, 인솔자 2명)이 2일 통일을 염원하며 남덕령 최남단 해남 땅끝에서 최북단 도리산역까지 장장 560km의 대장정에 올랐다. 이들은 이날 해남 땅끝 토말비를 출발해 걸어서 강진-장성-익산-천안-남양주-피주를 거쳐 22일 도리산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홍보한다.

/최현배기자 choi@

社 告

'광일춘추' 필진 바꿉니다

지역 정론지들의 모임인 춘추사가 공동진행하는 '광일춘추'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본보를 비롯해 부산일보, 매일신문, 제주일보, 강원일보, 대전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전북일보 등 지역 대표신문 9개사가 공동 게재하는 '광일춘추'는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각 분야의 최고 필진들이 참여, 수준높은 칼럼을 선보여 왔습니다.

5일부터 독자들을 찾아가게 될 이번 '광일춘추' 필진들은 전문 지식과 날카로운 관찰이 담긴 칼럼을 통해 독자들에게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줄 것입니다.



김열규 교수 안도현 시인 이우영 교수 한승헌 변호사

◇김열규 서강대 명예교수

▲서울대 국문과 졸업 ▲동아대 대학원 국문학 및 민속학 전공 ▲서강대 명예교수, 수필가, 문학평론가 ▲저서 '꿈엔들 잊힐리아', '한국인의 자서전', '욕,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 등.

◇안도현 시인

▲원광대 국문학과 졸업 ▲매일신문,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우석대 문예창작과 교수 ▲저서 '연어', '관계', '바닷가 우체국' 등.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인권센터 선임연구원 ▲(사)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동북아시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

◇한승헌 변호사

▲전북대 법정대 졸업 ▲고등고시 8회 ▲감사원장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경원대 석좌교수 ▲저서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 '정치재판의 현장' 등.

光州日報社

김승연 회장 1년6월 실행 선고

'보복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5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회적 폭행을 가했고 수사 초기 범행을 일질 부인하다가 구속을 앞두고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된 뒤 진정에 이르러까지 흥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부인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통상 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를 찾아가 훈계나 피해변상 요구, 형사고소 등 상식적 법치주의를

따라야 하나 피고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폭행이 유발됐다는 피고인측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정계산 공사장에서 쇠파이프를 사용해 피해자 조모씨를 직접 때리고 전기충격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는 점 등도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김 회장은 올해 3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차남이 폭행당한 데 격분해 비서와 협력업체 관계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복창동 술집 중입원 등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판결에 대해 한화측은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검찰은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 선고된 만큼 항소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광양·부산항 통합 운영해야"

국회 예산정책처 "배후단지 개발 시급"

광양항이 호남권 물동량을 주로 처리하는 '지역 항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저조한 예산 집행과 물동량 감소라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데다 수도권·충청권 물동량이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에 몰리면서 광양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일 국회에 제출한 '2006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통해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을 앞당겨 물동량을 적극 창출하고 부산항

과 광양항의 통합운영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와 중앙정부의 지원시스템 강화, 배후 수송체계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특히 현재 광양항·당진항에 몰리면서 광양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광양항과 부산항의 운영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불필요한 경쟁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양항부두공단 측은 "광양항과 부산항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면 정책적으로 후발주자인 광양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 전

체적으로 주요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며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항만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고 말했다.

광양항의 물동량 처리 실적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 1·4분기 물동량 처리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중에서도 환적 물동량은 오히려 21%나 대폭 감소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발생한 물동량 가운데 광양항의 처리 비중을 보면 수도권은 지난 2001년 9.5%에서 2004년 3.0%로 크게 감소했으며, 충청권은 2001년 18.1%에서 2004년 15.7%로 줄어 들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화수도 추진단장

이병훈씨 임명

지난 2월 말 이영진 단장의 사임 이후 4개월동안 공석으로 있던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에 이병훈(51) 대통령직무 문화기획위원이

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임명됐다.

<관련기사 및 인터뷰 3면>

이 선임 추진단장은 보성 출생으로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광양군수, 전남도 문화관광국장·기획관리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민지원본부장 등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채희종기자 chae@

우림학원 장학 67년 역사와 전통
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곳
남부대학교
http://www.nab.ac.kr
상설 장학금 1000000-2000 * 장학금 1000000-2000
세종대 필자기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i.ac.kr
상설 장학금 1000000-2000 * 장학금 1000000-2000

LANEIGE